

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を目的とした生活財調査の活用

著者	金 時徳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44
ページ	205-215
発行年	2003-12-26
URL	http://doi.org/10.15021/00001862

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を目的とした生活財調査の活用

金 時徳

1 「近い隣の国 日本」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

「近い隣の国 日本」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2001年10月27日に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と日本の「国立民族学博物館」が相互に相手国の文化を展示するという協約を結んだことにより、日韓両国で各々推進した特別展示のタイトルだ。この協約は、2000年4月7日に国立民俗博物館が日本の国公立博物館に日韓の民俗文化の交流を提案したこと、およびその年の4月28日に国立民族学博物館から日韓文化交流展の提案があったことに基づくものである。同年5月4日に日韓両国の関係者が韓国で相対し「日韓文化交流展共同開催」を約束し、その年の10月27日に日韓文化交流展の共同開催協定を締結したことで、本格的に日韓文化交流展の準備が始まったのである。

協議の結果として成立した展示の基本原則は、相互主義に立脚し、相手方の文化を自前の研究結果を土台として、互いに展示しようというものだった。国立民族学博物館には、既に「朝鮮半島の文化」展示室があり、韓国についての資料が相当に蓄積されている状態で、研究者もまた確保されていた。しかし問題は国立民俗博物館の方であり、こちらには日本に関する情報も資料もまったく準備されていなかった。よって日本の国際交流基金から支援を受け、この展示のために「現代日本生活文化研究会」が同年11月に結成されるなどの準備が進んだ。これと同時に日本側の韓国文化展示を支援し、生活財生態学的な研究を行う「チブ研究会」が結成された。そして日本では、韓国文化を展示するために「現代韓国社会における生活文化の研究とその方法」という共同研究会が始まり、その調査研究の成果を土台として展示の準備が進められた。

特別展に展示する展示資料の確保のため始まった生活財生態学の調査を進める過程では、博物館展示に対するこの調査方法の有用性を知ることとなった。生活財生態学ないし生活財調査を考現学（今和次郎）はその名の通り、一つの家庭で持っている生活財を通じて彼（女）らの生活の姿を把握し、消費傾向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だがそれ以上に、この作業が博物館の展示に活用可能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このような理由により、生活財生態学（ないし考現学）が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に活用しう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提示してみたい。

2 現行の博物館資料蒐集と展示の問題点

博物館の資料蒐集行為は、大きく分けて三つの目的で行われる。一つ目は、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展示という目的であり、二つ目は蒐集対象に対する研究目的、そして三つ目は消え行く資料の保存目的である。資料の蒐集方法もまた、一般的に大きく分けて、寄贈・押収・寄託など無償で獲得するものと、購入という有償で獲得する形態とが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にして蒐集された資料が果たしてどれほど展示に活用され、かつ有用性を持つものであるかについては、常に疑問も残るところである。どのような目的で蒐集されたかによりそれぞれに蒐集理由はあるものの、展示のための活用となると脈絡 (text) と状況 (context) が不足するという問題が生じる。所蔵資料の一つ一つが持っている意味はあるといえ、その資料が何処でどのように使用されていたのかについて元の状態の脈絡と状況を知ることが出来ないため、資料の活用にはいつも限界が生じてきたという事実がある。そのために所蔵資料を中心にした博物館の展示は、個別の遺物についての美的感覚や稀少性に焦点を当てた美術館や画廊の美術品展示の形態がいつも主流となってきた。このような展示は、主に考古学や美術史の展示方法に活用されてきたが、民俗・文化史博物館（民族学などの人類学博物館を含む）に与えた影響も少なからず見られる。だが、ストーリー・ボードによって順々にストーリーが展開するという方式の流れを重要視する民俗・文化史博物館の場合には、脈絡と状況がある資料が要求されるのである。

だが、このような民俗・文化史博物館の要求を充足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資料蒐集は、それほど容易いことではない。なぜなら第一に、韓国の考古・美術史博物館の場合は、その特性上から、資料の機能的な使用脈絡よりも個別資料そのものが持つ美的優秀さや作者によって資料の価値を決めるということをや末だに行っているためである。第二に、資料の流通経路を抑えている販売商たち（骨董品・競売など）は、今なお古典的な博物館資料の概念によって稀少・貴重で美しいものを商品として取り扱っているためである。第三に、文化財保護法が規定している文化財の概念に従って歴史的に価値があるものを中心に博物館資料の蒐集が行われているためである。第四に、現在の状況で資料の脈絡が十全に保全された資料を求めるといことが社会システム上で難しいためだ。

このような状況の繰り返しにより、民俗・文化史博物館の場合でも美術史博物館の展示形態を踏襲するしかない。そしてそればかりではなく、名品を展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気込みが常にあったのである。多様な展示技法の登場と発達に従い、既存の名品中心の展示よりは民俗・文化史博物館に相応しいストーリー展開式の展示が可能になり、名品中心の美術史博物館や美術館の展示とは区別が生じることとなったものの、現実にはまだ不備ばかりが目立つ状況だ。

3 民俗・文化史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のための生活財生態学の活用

生活財生態学は、民俗・民族学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において非常に有用な方法となり、大いに活用される可能性が高い。それは生活財調査を行う時に必ず執り行わねばならない個別資料のカード記録が博物館の資料登録（registration）と非常に相似しているためである。特に使用上の脈絡と状況についての情報を細かく記録するため、脈絡と状況を重要視する民俗・民族学博物館の資料蒐集においては有用な調査研究方法だと言える。

生活財生態学で使用する調査方法は、まず対象となる家庭を選択し、その家庭にある生活財全部をどのように記録し調査するかという計画を立てる。計画が立てば生活財がある場所ごとに分類番号を付け、その後でディレクトリ別に細部分類番号を付ける。そして各部分別に担当者を指定したり一人が順々に行うことにして、生活財を調査していく方法である。この時に基本的に生活財の撮影・固有番号づけ・材質・使用頻度・使用上の脈絡と状況・購入か寄贈か獲得かなどの入手方法・入手の理由・使用者など、そのものにまつわる情報を使用者と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て記録する。単に個別の生活財についての大きさの測定という段階がないだけで、これは博物館の資料登録とほとんど差がない。このため、状況と脈絡を備えた博物館資料としての価値を持つこととなるわけである。

「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まさにこのような方法でL氏の生活財を調査し、蒐集した資料をその脈絡と状況により展示したものであった。個別資料の脈絡と状況についての情報を持っていたので、資料同士の連結が容易であったし、観覧者にとっても理解しやすいものだった。このこととともに、生活財を使用する「ひと」に対する多様な情報の確保を通じ、実際に生活する姿の再現、そしてそれに留まらず使用者による日常生活空間の表現などをも通じ、展示効果を高めることが出来たのだった。そして生活財を使用する人々の生活の姿はもちろん、暮らしぶりの映像化によって展示の効果を高めることにも繋がっていたと思われる。

生活財生態学は歴史的情報に弱いのは確かであるが、博物館の資料蒐集のための適切な方法であることは既に言及したのみならず、「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で十分に証明もされた。よって韓国の博物館でも、生活財生態学的な調査によって博物館の資料を蒐集し、展示に活用することが出来るものと思われる。

韓国の場合、山間・漁村・農村により、保有している生活財が異なり、生活文化にも差が見られる。だが色々な状況により博物館ではこのような特性による資料を確保することが容易でない。だが、生活財生態学を活用するならば、このような特性に合う資料を簡単に確保できるだろう。例えば、農・漁・山村の典型的な特性を持つ家庭を一つず

つ選び、その家にある全ての生活財を調査し、これを購入して展示するという方法を考えることが出来る。そして可能ならその家屋までも購入することが出来れば、一つの展示テーマについてはもちろん、脈絡がある博物館資料の確保も可能であろう。もちろん該当する家庭の積極的な協力も必要であるし、有償であれ無償であれ、生活財の提供に対する代替物の購入などについても、十分に補償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ことについての十分な理解も前提として存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資料蒐集の方法は、単発的な事業ではなく、年次的な事業として推進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大きな効果を得ることが出来るだろう。すなわち、生活財についての徹底的な情報調査および蒐集、生活財を使用する人々の生活文化、そしてその家が属する集落の共同体文化に対する全般的な調査を経て、農・漁・山村の生活文化的な特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ろう。かつ、これらの生活財をすべて購入することにより、情報を内包した博物館資料の確保はもちろん、更に実質的な現実感のあるストーリー展開による展示も可能となるであろう。

4 生活財調査によって生まれた二つの展示

2000年10月31日に国立民族学博物館の佐藤浩司氏が展示資料の確保と生活財生態学の調査のため約一ヶ月にわたり国立民俗博物館のゲスト・ハウスに仮の住いを構えた。初めはもともと計画通りCh氏宅を対象として約三日間の生活財調査を実行したが、諸事情により調査の進行が不可能となった。このためCh氏はもちろん、関連諸氏の助けを借りることとなったものの、調査家庭探しは容易なことではなかった。なぜなら、生活財生態学的な調査事態が、考古学の遺物発掘のように、一つの家庭で保有している全ての生活必需品を取り出して写真を撮らねばならず、のみならず各家庭の生活財は相当の数量であるため、一度で終えたり短時間で終えることが出来るような調査ではなかったためである。そのため学校の先輩であったL氏に願い出ることとなったが、幸いにも快く承諾をして下さったので、調査を行うことが出来た。進行過程で紆余曲折はあったが、私の記憶では全てが順調に進み展示まで無事に終わった。そして現在までその資料についての整理とデータベース構築の作業が行われている。

一方韓国では、日本文化展示のために2000年11月に展示推進委員会を構成するなど、準備に拍車を掛けていた。しかし、どのような方法で展示するかについては意見が別れ別れとなり、その溝が簡単には埋まらなかった。日本文化一般を展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と、特徴的な一部を深く展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に分かれていた。そのような中で二つの立場を折衷しながらも、特徴的な部分を深く展示するという方法を取ることとなった。その結果、国立民族学博物館が所蔵している京都の「おばあさん」の遺品には生活財生態学に立脚した日本の伝統的生活文化を展示することが出来

た。これとともに日本の「若者」の生活財を調査し展示することとして、2001年7月に韓国の博物館研究者たちが直接女子学生（若者）のワンルームを現地調査した。この時には佐藤氏の助けを借りた。調査によって展示対象資料を選定し、生活財を有償で購入して展示することで、生活財調査の技法を活用した資料調査と、これに基づく一つの展示が可能となった。

このように二つの展示は生活財生態学を土台として誕生した第1号の作品となった。だが「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最初から生活財調査による展示資料の確保はもちろん、展示を目的とした計画で行われた。つまりL氏の生活文化を通して韓国の現代文化を見ようという方法で展示を進めたのである。一方で「近い隣の国、日本」の場合には、日本文化全体を見せるための全体アイテムの中の一つとして「おばあさん」の生活財と「若者」の生活財を活用した点で差がある。二つの展示の結果を見る時、展示の主題によっても差があるが、生活財生態学が民俗学ないし民族学博物館の展示のための調査方法として有用性を持つということが十分に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となるだろう。

5 結び

「近い隣の国、日本」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生活財生態学という調査研究方法が民俗・文化史博物館の資料蒐集と展示に有用性を持つ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る一つの証拠資料となった。両国で行われた二つの展示は、互いに互いの文化を各々の表現方法に従って展示したものであったが、互いの生活文化を適切にうまく表象したものと評価されている。二つの展示は、表現方法は違っても、生活財調査により生活文化のありのままの姿を本来生活財があったそのままの姿で展示したという点では、同一の方法を採用した展示だということになる。

名品中心の展示ではなく一つの地域ないし民族などの生活文化資料を調査・蒐集し研究・展示する民俗・文化史博物館では、このような生活財調査による資料蒐集と展示が効果的であるということを教わった。特に一つの地域の生活文化を総体的に展示する場合には、生活財調査が今回のケースよりも更に有用な方法論となることについては、再論の余地がない。生活財生態学は、民俗・文化史博物館の資料の命である脈絡と状況を持った資料の確保はもちろん、展示のためにも有用な方法論である。

生活財生態学は生活財の把握と現代の生活文化を研究するための新しい研究方法論として活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

박물관 자료 수집과 전시를 목적으로 한 생활재 조사의 활용

김 시덕

1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2002년 서울 스타일」

「가까운 이웃나라 日本」과 「2002년 서울스타일」은 2001년 10월 27일 한국의 「国立民俗博物館」과 일본의 「国立民族学博物館」이 서로 상대국의 문화를 전시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각각 추진한 특별전시 타이틀이다. 이 협약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일본의 국공립박물관에 한일 민속문화의 교류를 제안 한 적이 있었고(2000년 4월 7일), 그 해 4월 28일 국립민족학박물관으로부터 韓日文化交流展제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년 5월 4일 한일 양국 관계자가 한국에서 만나 「韓日文化交流展共同開催」를 약속하였고 그 해 10월 27일 한일문화교류전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일문화교류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전시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시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였다. 국립민족학박물관에는 이미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대한 상당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연구자 역시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일본에 대한 정보도 자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그 해 11월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지원으로 '현대일본생활문화연구회'가 이 전시를 위해 결성되는 등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측의 한국문화 전시를 지원하고 生活財生態学的 研究를 행하는 '집연구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문화를 전시하기 위하여 '현대한국사회에 있어서 생활문화의 연구와 그 방법'이라는 공동연구회를 시작하여 그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시 준비를 하였다.

특별전에 전시할 전시자료의 확보를 위해 시작한 생활재생태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전시를 위해 이 조사방법의 유용성을 알 수 있었다. 생활재생태학, 혹은 생활재 조사를 考現學(今和次郎)이라 한 것처럼 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재를 통해 그들의 생활모습을 파악하고, 소비경향을 알아내는 정도 이상으로 박물관의 전시에도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재생태학(혹은 考現學)이 박물관의 자료수집과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박물관 자료수집과 전시의 문제점

박물관의 자료 수집 행위는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행해진다. 하나는 어떠한 형태든 전시를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집 대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셋째는 소멸되어 가는 자료의 보존이 그 목적이다. 자료의 수집 방법 역시 크게 기증되거나 압수, 기탁 등 무상으로 획득하는 것과 구입이라는 유상으로 획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자료가 과연 얼마나 전시에 활용되고 또 유용성을 갖는가는 항상 의문사로 남는다.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었는가에 따라 수입 사유야 있겠지만, 전시를 위한 활용에서는 脈絡 (Text) 과 狀況 (Context) 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장 자료 하나 하나가 가지는 의미는 있을지라도 그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상태의 맥락과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에는 늘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의 전시는 늘 개별 유물에 대한 미적 감각이나 희귀성에 초점을 맞춘 미술관이나 화랑의 미술품 전시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전시는 주로 고고학이나 미술사 전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民俗·文化史博物館 (民族学등의 人類学博物館) 에 준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스토리 보드에 따라 순차적인 스토리 전개식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민속·문화사박물관의 경우에는 맥락과 상황이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속·문화사박물관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의 경우, 考古·美術史博物館은 그 특성상 여전히 자료의 기능적인 사용맥락보다는 개별자료 그 자체가 지니는 미적 우수성이나 작자에 따라 자료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의 유통경로를 점유하고 있는 판매상들 (골동품상, 경매 등) 은 아직까지도 고전적인 박물관 자료의 개념에 따라 여전히 희귀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의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의 개념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중심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의 상황에서 자료의 맥락이 온전하게 보존된 자료를 구하기란 사회 시스템 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에 따라 민속·문화사 박물관의 경우 역시 미술사 박물관의 전시형태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품을 전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시기법의 등장과 발달에 따라 기존의 명품 위주의 전시보다는 민속·문화사박물관에 걸맞은 스토리전개식의 전시가 가능하게 되어 명품 위주의 미술사, 미술관 전시와는 변별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은 미비하다.

3 민속·문화사박물관의 자료수집과 전시를 위한 생활재생태학의 활용

생활재생태학은 민속·민족학박물관의 자료수집과 전시를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생활재조사를 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하는 개별 자료 카드 기록이 박물관의 자료 등록(Registration)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맥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맥락과 상황을 중요시하는 민속·민족학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유용한 조사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활재생태학에서 사용하는 조사방법은 우선 대상 가정을 선택하여 그 가정에 있는 생활재 전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조사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운다. 계획이 성립되면 생활재가 있는 장소에 따라 분류번호를 부여한 후 디렉토리별로 세부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생활재를 조사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생활재의 촬영, 고유번호 부여, 재질, 사용빈도, 사용맥락과 상황, 구입이나 기증, 획득 등의 입수방법, 입수연유,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한다. 단지, 개별 생활재에 대한 크기 측정이라는 단계만 없을 뿐이지 박물관의 자료등록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을 갖춘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002년 서울스타일」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L씨의 생활재를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전시한 것이다. 개별 자료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상호간의 연결이 용이했고, 관람자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생활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확보를 통한 실제 생활모습의 재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따른 일상생활공간의 표현 등을 통해 전시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물론 생활이야기의 영상화를 통해 전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재생태학이 비록 역사적 정보가 약하기는 하지만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은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서울스타일」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박물관에서 생활재생태학적인 조사를 통해 박물관자료를 수집하여 전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산간, 어촌, 농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생활재가 다르고 생활문화 역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생활재생태학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특성에 맞는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농·어·산촌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한 가정을 하나씩 선택하여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활재를 조사하고 이를 구입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건물까지도 구입할 수 있다면, 하나의 전시테마는 물론 맥락 있는 박물관 자료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생활재의 제공에 따른 대체물의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생활재에 대한 철저한 정보조사 및 수집, 생활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문화, 그리고 이 집안이 속해 있는 마을의 공동체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농·어·산촌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생활재를 모두 구입함으로써 정보를 가진 박물관자료의 확보는 물론 좀더 실질적인 현실감을 살린 스토리 전개가 있는 전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생활재 조사로 태어난 두 전시

2000년 10월 31일 국립민족학박물관의 佐藤浩司씨가 전시 자료의 확보와 생활재생태학 조사를 위해 약 1개월간의 일정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의 게스트하우스에 여정을 풀었다. 처음에는 원래의 계획에 따라 Ch씨 집을 대상으로 약 3일간 생활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h씨는 물론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조사 가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활재생태학적 조사 자체가 고고학의 유물발굴처럼 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필품을 꺼내어 사진을 찍어야 하고, 목록화는 물론 집주인이 일일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생활재는 상당한 수량이어서 1회성이거나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 선배였던 L씨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쾌히 승낙을 해주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사히 전시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자료에 대한 정리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문화전시 준비를 위해 2000년 11월에 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그 범위를 쉽게 좁힐 수가 없었다. 즉 일본문화 일반을 전시해야한다는 입장과 특징적인 일부 분야의 심층적으로 전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두 입장을 절충하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교토의 「할머니」의 유품으로는 생활재생태학에 입각한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전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 젊은이의 생활재를 조사하여 전시하기로 하고 2001년 7월에 한국의 박물관 연구자들이

직접 여대생의 원룸을 현지조사 하였다. 이 때 佐藤씨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를 통해 전시대상자료를 선정하고 생활재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전시함으로써 생활재조사 기법을 활용한 자료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전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두 전시는 생활재생태학을 토대로 탄생한 제 1 호 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2002 서울스타일」은 처음부터 생활재조사를 통해 전시 자료 확보는 물론 전시를 할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즉 L 씨의 생활문화를 통해 한국의 현대문화를 보려는 방향으로 전시를 진행하였다. 반면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일본 문화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전체 아이템 중의 하나로서 할머니의 생활재와 젊은이의 생활재를 활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전시의 결과를 볼 때 전시 주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재생태학이 민속학, 혹은 민족학박물관의 전시를 위한 조사방법으로서 유용성이 충분히 확인된 셈이다.

5 마무리

「가까운 이웃나라 日本」과 「2002년 서울 스타일」은 생활재생태학이라는 조사연구 방법이 민속·문화사박물관의 자료수집과 전시에 유용성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되었다. 양국에서 이루어졌던 두 전시는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각기 자신들의 표현방법에 따라 전시한 것이었지만, 상대방의 생활문화를 적절하게 잘 표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현방법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두 전시의 공통점은 생활재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래 생활재가 있던 모습 그대로로 전시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채용한 전시가 된다.

명품 위주의 전시가 아니라 한 지역, 혹은 민족 등의 생활문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연구·전시하는 민속·문화사박물관은 이러한 생활재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전시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 지역의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전시할 경우 더욱 유용한 방법론임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생활재생태학은 민속·문화사 박물관 자료의 생명인 맥락과 상황을 가진 자료의 확보는 물론 전시를 위한 유용한 방법론이다.

생활재생태학은 생활재의 파악과 현대 생활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